

보 도 자 료

생산자

국가한옥센터

국가한옥센터장 이강민
담 당 이민경

031-478-9674

031-478-9836

4월 17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한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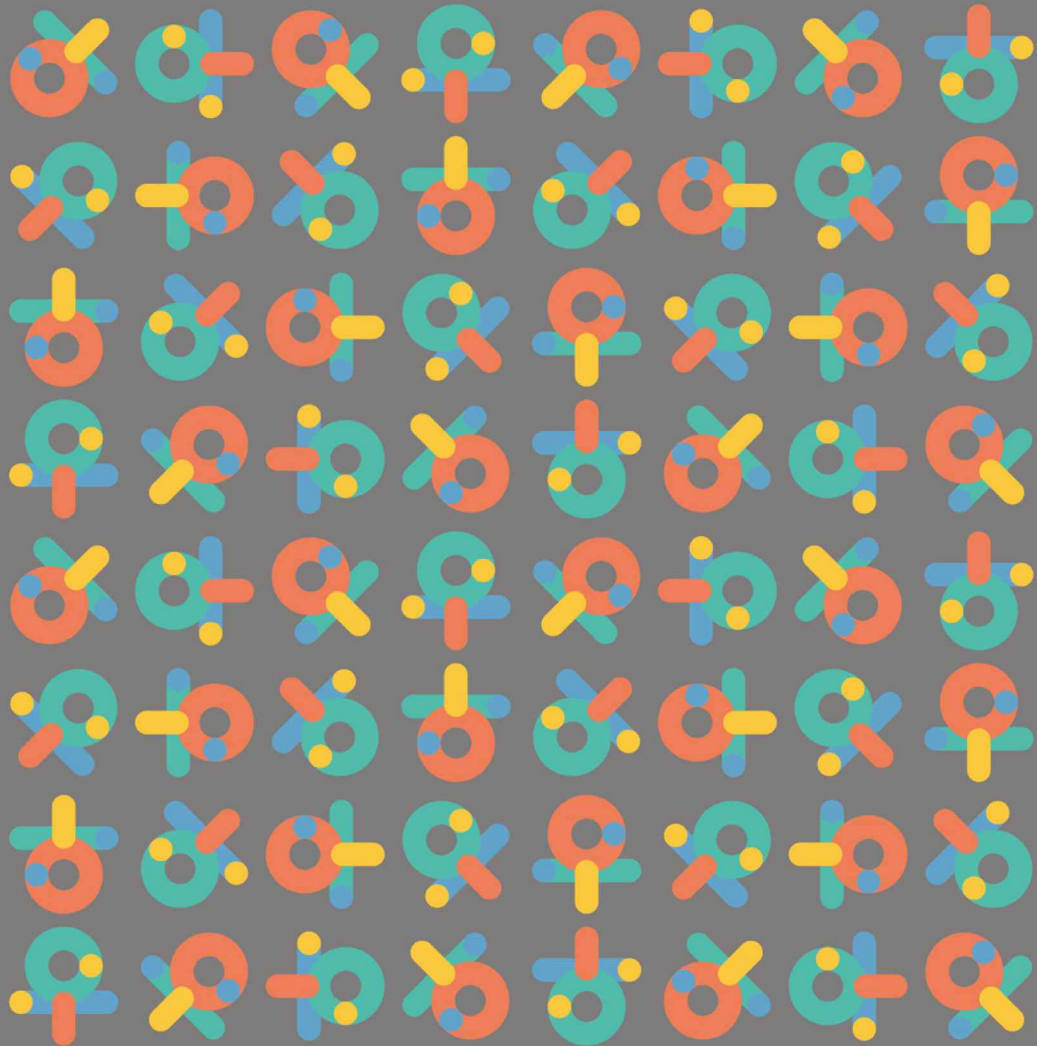
- 2013 auri 국가한옥센터 제1차 한옥포럼 -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제해성) 국가한옥센터에서 주최하는 2013 제 1차 한옥포럼이 4월 19일(금) 오후 2시, 명동 포스트타워(서울 중랑구 체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 한옥포럼은 국가한옥센터에서 2011년부터 개최해 온 행사로 한옥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옥 정책과 한옥 문화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 기획되고 있다.
- 2013년 한옥포럼은 '우리가 원하는 한옥'이라는 대주제 아래, '우리가 살고 싶은 한옥'(한옥 수요), '우리가 짓고 싶은 한옥'(한옥 기술), '우리가 돌보고 싶은 한옥'(한옥 보전), '우리가 배우고 싶은 한옥'(한옥 교육) 등 총 4차례가 개최될 예정이다.
- 제1차 한옥포럼은 한국건축역사학회(회장 김봉렬)와 공동으로 주최하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가 후원한다.
- 이번 행사는 '우리가 살고 싶은 한옥'이라는 주제로 다변화되어가는 한옥의 형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고 싶은 한옥의 모습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첫 번째 발표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이경아 교수가 ‘고급한옥과 보급한옥’이라는 주제로 가격·용도·규모 등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공급되고 있는 한옥의 다양한 모습을 검토한다.
- 두 번째로는 이화여자대학교 윤재신 교수가 ‘하이브리드 한옥과 한옥하이브리드’라는 주제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화되어 온 한옥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미래 한옥의 모습을 전망한다.
- 마지막으로 국가한옥센터 이강민 센터장이 ‘한옥 수요 다변화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옥 수요의 다변화 양상과 그에 따른 정책적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 발표가 끝나면, 원광대학교 건축과 홍승재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건축공학부 김기주 교수, 금성건축사사무소 김용미 대표,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최상희 수석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 한민호 과장,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김근오 과장 등이 현대 한옥 수요의 방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 국가한옥센터는 이번 포럼을 통해 한옥의 다변화 양상과 현대 주거유형으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한옥 보급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자리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붙임 : ‘우리가 살고 싶은 한옥’ 초청장. 끝.

□ 포럼 초청장



2013 auri 국가한옥센터 한옥포럼

제1차_우리가 살고 싶은 한옥

일시_2013년 4월 19일(금) 오후 2시-6시

장소_명동 포스트타워(서울 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

모시는 글

2013 auri 국가한옥센터 한옥포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에서 개최하는 ‘한옥포럼’은 한옥에 관심 있는 모든 분을 대상으로 한옥 정책과 한옥 문화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의 장입니다.

국가한옥센터 한옥포럼은 2011년부터 개최되어 왔으며 2012년에는 “생활공간으로서의 한옥, 가치와 전망”을 주제로 진행되었고, 2013년에는 “우리가 원하는 한옥”을 큰 주제로 삼고 우리가 살고 싶고, 짓고 싶고, 돌보고 싶고, 배우고 싶은 한옥의 상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현재 한옥의 생산과 소비가 다양한 층위에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한옥문화의 파급효과와 함께 한옥건축의 양적 증대가 이루어지고, 한옥기술의 고도화와 한옥교육의 확대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대상이 되는 한옥의 이미지는 사람들마다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한옥의 이미지를 하나로 합칠 것인가? 아니면 다양한 이미지를 인정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한옥은 무엇인가? 2013년에는 이와 같은 질문을 함께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한옥정책의 방향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장으로, 4월 19일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한국건축역사학회와 함께 “우리가 살고 싶은 한옥”이라는 주제로 현대 한옥의 수요를 점검합니다. 최근 지어지는 한옥의 모습을 살펴보면, 문화재급의 명품 한옥부터 대량생산이 가능한 보급 한옥에 이르기까지, 주택으로 쓰이는 한옥부터 상점, 문화시설, 공공청사에 이르기까지 가격과 용도가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통재료와 옛 기법을 충실히 지닌 것부터 유리나 철판 등 현대재료를 과감하게 도입한 것, 나아가서는 한옥의 일부 요소만을 추출해서 현대건축과 결합시킨 것까지 한옥의 천태만상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다양한 한옥의 양상이 존재하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포럼에서는 이렇게 다변화되어가는 한옥의 형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고 싶은 한옥의 모습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을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

본 포럼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 4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제 해 성**

주제 우리가 살고 싶은 한옥

일시 2013년 4월 19일(금) 14:00-18:00

장소 명동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

진행순서

13:30-14:00	등록	사 회	신치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14:00-14:20	개회사		제해성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환영사		김봉렬 한국건축역사학회 회장
14:20-15:50	주제발표1		고급한옥과 보급한옥 이경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건축학과 교수
	주제발표2		하이브리드 한옥과 한옥 하이브리드 윤재신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주제발표3		한옥 수요 다변화 대응 전략 이강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센터장
15:50-16:00	휴식 및 정리		
16:00-18:00	패널 및 전체토론	좌 장	홍승재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토론자	김근오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과장
			김기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김용미 (주)금성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최상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한민호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 과장
18:00	폐회		

주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한국건축역사학회

주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후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문의 국가한옥센터(031-478-9618, 9648)